

홈 뉴스 북미 한인회2단체 소식

美 서니베일 다솜한국학교, 설날 정취 나눠

세배, 덕담, 전통놀이, 떡국 등 2015 설잔치 개최

2015년 02월 16일 (월) 16:33:11

김영기 기자 tobe_kyg@naver.com



▲ 다솜한국학교가 지난 7일 설잔치를 열었다. 학생들이 교회에서 초청된 웃어른들에게 세배를 하고 있다. 사진: 다솜한국학교,

미국 캘리포니아 서니베일에 자리한 다솜한국학교(교장 최미영)가 한국인의 전통과 정(情)을 나누는 '2015 설잔치'를 14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학생, 학부모, 교사들뿐만 아니라 교회 웃어른들까지도 함께 해 그 의미를 더욱 뜻깊게 했다.

먼저 사물놀이 팀의 축하공연이 끝난 뒤,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학생들이 대한민국반, 조선반, 고려반, 통일신라반 순으로 교회에서 초청된 웃어른들에게 세배를 했다.

세배를 받은 웃어른들은 덕담과 함께 세뱃돈을 건네고 학생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다.

한국의 ‘예뵘 한복(대표이사 추민수)’에서 10벌을 협찬해준 덕에 한복이 없는 학생도 소외받지 않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었다고 학교 측 관계자는 전했다.

세배 뒤에는 전통놀이 순서가 펼쳐졌다. 각자 팀을 나눠 널뛰기, 제기차기, 투호놀이, 사방치기, 윷놀이 등을 즐기며 세시풍속을 익히는 시간을 보냈다.

이어서 학부모들이 장만한 설음식을 다 함께 나눠 먹는 자리가 마련됐다. 떡국 외에도 각종 전, 나물, 과일들이 준비돼 참석자들이 푸짐한 설날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들었다.

최미영 다송한국학교장은 “이번 설 잔치가 학생들의 마음에 크게 아로새겨져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과 예절을 지켜나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2015년에도 학생들이 모두 건강하고 자신의 꿈을 향해 열심히 노력하길 바란다”고 개최소감을 밝혔다.



▲ 한복을 차려입고 전통놀이 중인 학생들+사진@다송한국학교,

김영기 기자 dongponews@hanmail.net

tobe_kyg@naver.com

© 재외동포신문+kws=22z z z 1grqj srqhz v1qhw,#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저작권문의